

이학이 불교·도교 교의 섭수해 사상적 주도권 장악

<45> 명대(明代) 제왕(帝王)의 불교정책

명대(明代)에 들어서면서 통치자들은 점차로 이학(理學)을 통치이념으로 삼게 됐다. 그에 따라 불교는 점차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불교의 쇠퇴는 '이학'이 불교와 도교의 교의를 충분히 섭수해 사상적 주도권을 장악한 것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최고 통치권력인 황실에서 엄격히 불교통제책을 채택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 이는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이 즉위 초에 "천하를 안정시키기 위해 집은 제유(諸儒)와 함께 치도(治道)를 논해 밝히겠노라"(<명사(明史)·태조기(太祖紀)>권2)라고 선언한 것에서 짐작된다.

주원장은 본래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16세에 고아가 돼 기근을 피하고자 호주(濠州; 현安徽省 鳳陽)의 각황사(覺皇寺)로 출가했다. 이러한 경력은 주원장으로 하여금 원조(元朝)가 지나치게 불교를 숭상해 발생한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게 했다. 그는 25세에 '불교타도'의 가치를 내건 도교의 반란군인 백련교도 각자흥(郭子興)의 부하였다. 그 후 뛰어난 전공을 세워 반란군 지도자가 돼 명왕조를 세웠다. 명조를 세운 태조 주원장은 본격적으로 불교를 정돈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홍무(洪武) 원년(1368), 태조는 금릉(金陵) 천계사(天界寺)에 '선세원(善世院)'을 설치해 해담(慧曇) 대

을 내려 경제적으로도 철저히 사원을 통제하려 했다.<석감계고략속집>권2, <속불조통기>권2 등 참조) 이러한 태조의 사원통제 목적은 민중의 조직과 사찰이 결합됨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에 있었다. 이는 원말(元末)의 반란이 주로 불교와 도교 등의 사묘로부터 조직돼 일어났던 것과 태조 본인도 승려출신이었던 것에 기인했다.

홍무 24년(1391)에 태조는 <신명불교방책(申明佛教榜冊)>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지금 천하의 승려는 대부분 속인과 섞여 있고, 오히려 속인보다 못한 자가 매우 많다. 그 가르침에는 귀의했지만 그 덕행을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당시 불교의 현황을 진단하고, 선·강·교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권유했다. 특히 선종에 대해서는 "대중을 모아 총림(叢林)을 이뤄 청규(淸規)로써 안전(安禪)하라"고 해 산림에 은둔해 수행하기를 권유했다. 만약 이를 어겨, "총림에 들어가지 않고 사사로운 권속이 있거나, 민간에 몰래 머물러 사람들에게 고발되거나 관부에 붙잡히면, 반드시 머리를 베어 대중에게 보이고, 숨겨준 자는 3000리 밖으로 유배 보낸다"(<석감계고략속집>권2)라고 엄격히 규정했다. 이렇게 선종에 대해 특히 통제를 강화하는 까닭은 당연히 당시 민중에게 가장



그림 · 김흥인

집>권2) 이러한 조치는 민중과 승려가 결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려는 의도로서, 당시 건국 초기의 불안정한 정세와 태조의 완전한 중앙집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태조의 정책은 양송(兩宋) 이후 기울어져 가는 선종을 비롯한 전체적인 불교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태조 주원장이 죽자 손자인 주윤문(朱允熥)이 건문제(建文帝)에 오르지만,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 주체(朱棣)가 이른바 '정난(靖難)의 역(役)'을 일으켜 4년간의 전쟁을 통해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에 올랐다. 그런데 모반의 과정에서 도연(道衍) 선사가 모사를 맡았고, 제위에 오른 후 도연 선사의 공훈을 '제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성조는 불교에 대해 태조와는 달리 우호적이었다. 관련된 기록에 따르면 영락 18년(1420) 성조는 <법화경> 서문을 찬술했다. 다시 친히 <신승전(神僧傳)> 9권(<대정장>50)에 수록을 찬술하기도 했다. 또한 영락(永樂) 18년에는 "황제가 경전의 서문 13편, 보살찬(菩薩贊)의 발문(跋文)을 12편을 찬술해 각각 경전의 머리에 실었다"(<석감계고략속집>권3)고 한다. 성조가 태조와는 달리 불교에 우호적이었던 것은 도연 선사후에 황명으로 요광효(姚廣孝)의 속명을 사용함)와의 관계 때문이었다. 성조 역시 기본적으로는 태조와 마찬가지로 유허(理學)를 통치사상으로 삼는 한계가 있었다. 성조는 반복적으로 "집은 유가의 도로 천하를 다스린다.", "집이 천하를 다스리는데 쓰는 것은 오직 유가의 오경(五經)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람들이 불교와 도교를 힘을 다해 숭상하지만 조

상을 모시는 예를 소홀히 하는 것은 화복(禍福)의 설에 빠져있을 뿐으로 그 근본에 어둡기 때문이다"(<명사(明史)> 권7 <성조기(成祖紀)>)라고 해 불·도 양교에 대하여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조의 불교보호정책은 자칫 꺼져 버릴 위기에 처한 중국불교에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

이후에 명조의 제왕들은 대체로 불교를 보호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영종(英宗)은 독실한 불교도인 환관 왕진(王振)에게 명해 경도(京都; 北京)에 대흥룡사(大興隆寺)를 짓고서 '천하제일총림(天下第一叢林)'의 사액(賜額)을 내렸으며, 현종(憲宗)은 승려들을 예우해 '법왕(法王)', '불자(佛子)', '국사(國師)' 등의 칭호를 무수히 내렸고, 그러한 칭호를 받은 스님들은 모두 자급성에 출입하도록 했다. 또한 신종(神宗)의 모친(聖母慈聖宣文明肅皇太后)이 불교에 귀의해 스스로 '구련보살(九蓮菩薩)'이라는 법호를 사용했고, 수많은 사찰을 건립했다. 신종 역시 불교에 상당히 관심을 보여 만력(萬曆) 12년(1584) 영락제 시절에 만들어진 <대장경>(永樂南藏)에 걸려있던 부분을 보충해 <속장경>을 간행하고, 친히 <어제신속입장경서(御製新刊續入藏經序)>를 찬술했다. 또한 무종(武宗) 주후종(朱厚照)은 즉위한 후 하루에 4만 여 승려를 출가시켰다. 정덕(正德) 5년(1510)에는 스스로 '대법법왕(大魔法王)'의 칭호를 사용했고 자주 승의(僧衣)를 걸치고 다니며 궁내에서 널리 불법을 강연했다.<석감계고략속집>권3) 그러나 세종(世宗) 주후종(朱厚熜)의 재위기간

(1522-1566)에는 황제가 도교를 신봉해 불교에 대한 극심한 억압정책을 실시했다. 세종은 스스로 '영소상청통리원양묘일비현진군(靈霄上清統雷元陽妙一飛玄眞君)'으로 칭하고 도사들을 궁내로 출입시키며 밤낮으로 도교의례를 행했다. 이와 동시에 세종은 1만3000여 불상 등을 훼손했다. 무종이 정덕연간에 주조한 불상의 도금 1천3천량을 벗겨내기도 했다. 명대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도첩의 매매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대종(代宗) 경태(景泰) 2년(1451) 조정은 구황과 군비조달의 명목으로 도첩을 매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도첩의 매매는 공식화돼 점차로 사된 무리가 넘쳐나 승가의 우환이 돼버렸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의 답연원징(湛然圓澄) 선사가 찬술한 <개교록(開教錄)>의 "혹은 큰 사고를 치고 승려가 되었고, 혹은 감옥에서 도망 나와 승려가 되거나, 혹은 빛을 갈을 수 없어 승려가 되거나, 혹은 승려이면서 처를 거느리고 진속(眞俗)의 '쌍수(雙修)'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부부가 모두 승려가 되어 함께 짝에 머물거나, 혹은 남녀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사찰에 머물거나 온갖 이들이 승려가 되었다."라고 하는 문구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명대의 불교정책은 비록 몇몇 황제가 불교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태조로부터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통제를 통하여 '억불'의 기초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명대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교의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침체기에 빠지게 된다. 그에 따라 명대는 불교를 중흥하고자 하는 고승들과 거사들의 반성적인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는 시기였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명대(明代) 통치자들 엄격히 불교통제책 선택

교의 제창 이루지 못하는 불교정책 침체기

사를 종이품(從二品)에 해당하는 관직을 내려 '연법선세이국종교대선사(演梵善世利國從教大禪師)'라고 칭했다. 그 밑에 통령(統領), 부통령(副統領), 진교(贊教), 기화(紀化) 등의 승관(僧官)을 뒀 전국조직을 만들어 불교를 관리했다. 홍무 14년(1381)에 '선세원'을 '승속사(僧錄司)'로 개편해 전국 승가조직을 더욱 완비했다. 다음 해인 홍무 15년(1382)에는 전국사찰과 승려들을 선(禪)·강(講)·교(敎)의 셋으로 분류하도록 명했다. '선'은 선종을 가리키고, '강'은 천태·화엄·밀교 등 종파를 가리키고, '교'는 구복(求福), 천도제, 공양 등의 각종 의식(儀式)을 가리킨다. 또 각각의 승복을 엄격히 규정했다. '선승'은 다 갈색인 옷과 홍초 옥색의 가사를, '강승'은 옥색 옷에 홍초 천홍의 가사를, '교승'은 백의와 흑초 천홍의 가사를 착용하도록 하고 결코 섞이지 않도록 했다. 또, 같은 해 사전(寺田)의 매매를 금지하는 조칙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종파였기 때문이다. 또한 <신명불교방책>에서는 도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승복사에서 도첩을 발급하는데 비용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수와 자격에 대하여 철저히 통제했다. 도첩은 3년에 1회로 규정했고 남자는 4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3년에 한 차례씩 시험을 치러 불합격하면 도첩을 회수했다. 또한 각 주(州)와 현(縣)에 사찰과 승니(僧尼)의 수를 엄격하게 한정했다.

홍무 27년(1394), 태조는 다시 방문(榜文)을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승려가 도시와 촌락에 들어가 모연(募緣)함을 금지시켰고, 관부와 교류하는 것도 불허했다. 나아가 일반인이 이유 없이 사찰에 들어가거나 짓조차도 금지시켰으며 "주지나 모든 승려가 감히 관부와 교류하거나 속인을 친구로 하는 자는 중죄(重罪)로 다스린다"라고 규정했다.<석감계고략속

<p>불자 정보 757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마산역 시장 내 ● 포교원 인수할실 분 ● 방2, 삼존불, 탕화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약간 있음 <p>011-8686-0949</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주, 언양 (인접) 부근 ● 매우 발전적 사찰 운영 중심 ● 가액: 2억 정도(절종가) <p>017-559-8904</p>	<p>지리산자락 고평한 암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50평 ● 대지 320평 ● 건물: 황토건물 4동 ● 수행 정진 할실 분 ● 가액: 1억 5천만원 <p>055)882-0319</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하동(지리산쪽) ● 총 8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2, 방 4개,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서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p>010-3138-4897</p>	<p>포교원(금)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칠곡 약목기저역 맞은편 ● 평수: 약 45평 (시설 완비, 공기 청정) ● 법당, 삼존불, 방2, 주방, 화장실 ● 2층 건물 중 2층(욕상사용) ● 보증금 1,500만원 / 월 10만원 ● 시설비 1,300만원 <p>054)974-0307 017-217-1919</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정용 우백호 뚜렷한 포안형(남향) ● 가액: 2억 5천만원 <p>011-452-8374</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지 ● 대지: 80평, 법당 15평 ● 요사채, 방5개, 거실 1, 주방 2 ● 가액: 2억 3천만원 ● 주인직접, 절충 가능 함 <p>011-792-8969</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울산시 남구 시내 대로변 ● 3층건물 중 3층 5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최고시설, 방2, 주방, 욕실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p>052)274-1113 010-8301-2777</p>	<p>포교당(금)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사천시 ● 면적 65평 ● 방 4개, 다용도실, 임법당 ● 삼존불, 냉난방, 완벽 설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실비 상의 ● 타사찰 소임으로 금양도 <p>018-622-9865</p>	<p>작은 암자 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산속 또는 외마로 떨어져 있는 곳 원함 ● 경남 지역 원함 <p>010-4555-2325</p>	<p>포교원(금)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화곡역분거리변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욕상사용 ● 법당 20평 ● 휴불량화, 백의관음불, 후불사신탱화 ● 현 상연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 확장불사관계로 금양대함 <p>010-3552-3351</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영도 바다가보이는곳 ● 평수 117평 ● 법당: 20평 목조건물 ● 요사채 4동, 산신각, 용왕당, 석탑 <p>010-9798-1091 영주불사</p>	<p>포교원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울산시내 중심지 ● 최고 위치, 최고 시설 ● 삼존불,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42평 ●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약간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주세요 <p>010-5453-5535</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앞 도로 ● 3층건물에 2층 ● 평수: 30평 ● 가액: 2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00만원 ● 보증금은 조절가능 <p>051)782-0110 010-3101-1151</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밀양시 산외면 ● 평수 대지 400여평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약사여래불 대세지보살, 칠성 ● 소부처 10불, 안련법당으로써 범해가능 ● 사찰내 주차가능 IC에서 2분거리 ● 사찰 앞 경관이 좋으며 산 경치가 수려하며, 등산로를 끼고 있다 ● 가액: 2억 <p>010-9418-5938</p>	<p>사찰(종무원)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구 중심 요지(지하철역) ● 건물전체(3층), 주차장 등 ● 포교, 교육, 총무원 적지 ● 최고시설(법당, 종무원, 후원, 난방 등) ● 전체 7,000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p>010-6780-6271</p>	<p>사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충주시 풍동 종교시설 ● 사찰로 최적지임 ● 대지: 480평, 건평 50평 ● 가액: 1억 8천만원 (용사 3천 2백만원 포함) <p>016-472-5654</p>	<p>부산대 사찰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300평(법당 및 요사채) ● 국유지(산) 450평(종로(사용되지 않음)) ● 2년생 불상(부처) 5구, 부처 불상(5호) 목조요사(30평) ● 단층 벽돌로 요사채 2층(50평) ● 명부전, 산신, 용왕당, 종가, 약사여래상(15층) ● 지하수 사용, 창고(2동), 화장실(2동) ● 실아보일러, 사찰내 주차(20대 이상) ● 가액: 10억 <p>051)302-3100 016-430-7789 010-6560-4790</p>	<p>포교원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송파구 전철역에서 3-4분거리 ● 4층중 2층, 실평수 약 50평 ● 시설: 방3, 부엌1, 화장실 ● 아미타석자반동굴, 지장보살2자반 동굴, 관세음보살2자반, 후불신신탱화와 합 60평 ● 모든시설완비,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월 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절종가), 스님 사정상 급히 양도 <p>010-5336-8875</p>	